

“리빌딩? NO! 시스템 통해 성적·미래 동시에 잡겠다”

장정석 KIA 신임 단장 인터뷰

“리빌딩은 KIA에 어울리지 않다”며 장정석 신임 단장이 변화와 시스템을 통한 명문 재건을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고요한 조연’을 자처했다.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48) 단장이 25일 챔피언스리그를 찾아 신임 단장으로 첫 하루를 보냈다. 장 단장은 “기쁘고 행복하다. KIA라는 구단 자체가 명문이기도 하고 팬층을 많이 확보한 팀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닐까 한다”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닥치겠지만 굉장히 설레고, 우선은 선택받았다는 자체에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2년 현대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선수로 뛰었던 그는 단장으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장 단장은 “현대 시절에는 2군을 오가는 백업이었고 KIA에서는 주전은 아니고 주전 백업이었다. 여기 있는 3년 동안 팀이 포스트 시즌을 다 나갔는데, 나는 두 번 엔트리에 들었고 좋은 기억만 있다”고 웃었다.

웃음은 보였지만 장 단장에게는 업무가 산적해 있다. 올 시즌 9위로 3년 연속 ‘가을잔치’에서 탈락했고, 불협화음 속 방향성 없는 운영으로 약팀으로 추락했다.

적당과 해설위원으로 지켜본 KIA의 강점과 약점을 묻자 그는 “강점이 있나요?”라는 뼈있는 농담을 했다.

장 단장은 “현장에 있을 때는 단점을 파악하고 이기려는 생각이었고, 방송할 때는 ‘잘 해야 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야구 붐을 위해서라도, 명문팀다운 모습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명문팀으로 재도약을 위해 그는 ‘시스템’을 이야기했다.

장 단장은 “최준영 대표이사님과 한 차례 미팅이기는 했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걸 느꼈다”며 “감독 전제조건이 선수층이 두텁

“감독·코치·선수가 중심 되는

안정적 시스템 마련에 중점

KIA에 ‘리빌딩’은 어울리지 않아

명문구단은 성적·육성 같이해야

변화 통해 팬들에 다가가겠다”

고, 좋아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탄탄해져야 한다. 내 위치가 현상이 아닌 프런트이기 때문에 감독, 코치,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좋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밑에서부터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어떤 감독이 오든 구축된 구단의 시스템, 플랜을 내밀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주제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현재 시스템을 우선 살펴서 안정적이고 길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 바탕에는 ‘소통’이 있다. 그는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한다. 마음을 통한 소통을 하겠다. 수장들이 소통이 잘 돼야 코치, 선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전파된다.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것은 감독, 단장, 선수, 프런트 각자 맡은 부분, 역할이 있다. 본인의 역할이나 능력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한다. 단장으로 역할은 분명히 있다. 나서지 않고 조용히 좋은 환경에서 경기하고, 몸을 만들고, 편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신경 써주고 싶다. 잘하면 선수들, 감독, 프런트 코치들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팀이 성장하면 좋겠다”며 “어떤 조직이든 역할 분담이 선을 넘어서 깨지기도 하는데 선을 넘지 않게 소통 잘 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프런트와 상의할 생각이다”고 이야기했다.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리빌딩’이 아닌 성적과 미래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좋은 선수가 많고, 투자가 많아지면 성적이 따라오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어떤 환경에서 경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 (구단)이 과감한 투자도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팀이 리빌딩을 이야기하는데 KIA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팬층이 두텁고 명문 구단일수록 성적과 육성을 같이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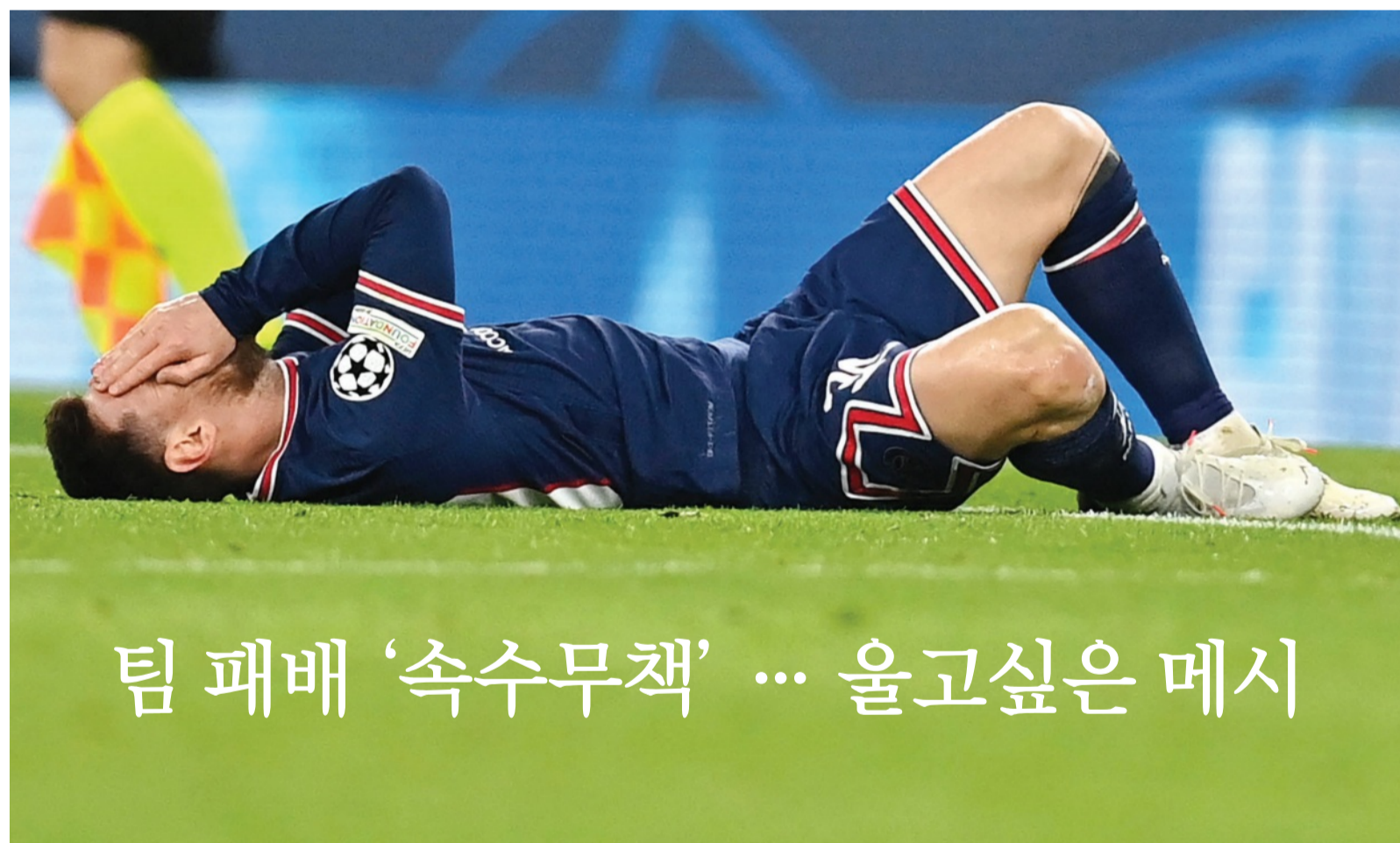
단장 감독 선임과 FA계약 등 굵직한 사안이 장 단장을 기다리고 있다.

장 단장은 “미팅을 하면서 당시 감독인지, 단장 후보인지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여러 후보들의 장·단점을 물어보셔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지 등 전력과 FA 영입에 대해서도 밖에서 본 KIA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대표이사님이 실무진과 많이 의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화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 단장은 “선수, 감독, 해설하면서 느꼈지만 KIA라는 명문구단이 아주 잘 할 때 팬들의 합성과 열정이 다들 떠오를 것이다. 신임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변화를 찾고, 실제로 하고 있다.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 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맨체스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5차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잉글랜드) 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의 경기. PSG의 리오넬 메시가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누워있다. /연합뉴스

맨시티, PSG 꺾고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잉글랜드 4개 팀 모두 16강 진출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에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 진출했다.

맨시티는 2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맨체스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UCL 조별리그 A조 5차전에서 PSG를 2-1로 물리쳤다.

이로써 맨시티는 4승 1패, 승점 12를 기록해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조 1위를 확정했다.

PSG도 이날 졌지만 2승 2무 1패, 승점 8로 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진출했다.

조 3위 라이프치히(독일)의 승점이 4에 불과해 남은 한 경기로는 PSG를 앞지를 수 없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두 팀의 경기에서 선제골은 파리 생제르맹이 터뜨렸다.

후반 5분 리오넬 메시의 땅볼 크로스가 맨시티 수비수 몸 맞고 방향이 약간 틀어진 상황에서 킬리안 음바페가 골키퍼 다리 사이로 오른발 슈팅, 첫 득점을 뽑아냈다.

그러나 맨시티는 후반 18분 라힘 스텔링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31분에는 가브리엘루 제수스가 베르나르두 실바의 패스를 받아 2-1을 만드는 역전 골을 넣어 승부를 뒤집었다.

B조에서 이미 조 1위를 확정된 리버풀(잉글랜드)이 FC포르투(포르투갈)를 2-0으로 꺾고 조별리그 5연승을 이어갔다.

후반 7분 타이고 알칸타라, 25분 무함마드 살라흐가 연속 골을 터뜨린 리버풀은 조 2위 FC포르투와 격차를 무려 10점으로 벌렸다.

B조에서는 FC포르투가 승점 5로 2위에 올라 있고 AC밀란(이탈리아)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나란히 승점 4로 경쟁 중이다.

D조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인터 밀란(이탈리아)이 조 1위를 놓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대결한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가 세리프 타라스폴(몰도바)을 원정에서 3-0으로 완파하며 홈 경기 1-2 패배를 설욕했고, 인터 밀란은 사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를 2-0으로 물리쳤다.

레알 마드리드가 4승 1패, 인터 밀란은 3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을 확정할 가운데 두 팀은 12월 8일 조 1위 자리를 놓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별리그 최종전 맞대결을 벌인다.

이날까지 A조 맨시티와 PSG, B조 리버풀, C조 아약스(네덜란드)와 스포르팅CP(포르투갈), D조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 밀란, E조 바이에른 뮌헨(독일), F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H조 첼시(잉글랜드)와 유벤투스(이탈리아) 등 11개 팀이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일구상, 최고 타자상 이정후·지도자상 이강철

키움 이정후와 삼성 백정현이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가 선정한 최고의 타자와 투수가 됐다.

일구회는 ‘2021 나누리병원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일구대상에 이어 9개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다.

0.360의 타율로 처음 타격왕에 오른 이정후가 2년 연속 최고 타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후는 출루율 3위(0.438), 장타율 4위(0.522)에도 이름을 올렸고, 타자의 득점 생산력을 나타내는 조정 득점 창출력(wRC+) 부문도 165.8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백정현은 평균자책점 2위(2.63)와 다승 공동 4위(14승)의 성적을 내면서 OB들의 선택을 받았다. 투수 WAR(단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도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2위(5.27)였다.

의지노력상은 홀드 4위(24개) LG 김대유가 받는다. 지난 9년의 프로 생활 기간 39경기 출전에 그쳤던 김대유는 올 시즌 64경기에 나와 24개의 홀드를 수확했다.

신인상은 44경기에서 47.1이닝을 소화하며 20개의 홀드를 올린 롯데 2년 차 투수 최준용에게 돌아갔다.



키움 이정후

KT 이강철 감독

프로 지도자상 수상자로는 KT 이강철 감독이 결정됐다. 이 감독은 지난해 팀을 첫 포스트시즌에 올려놓았고 올해는 창단 첫 통합 우승도 이끌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시리즈 MVP출신 첫 우승 감독 기록도 만들었다.

특별공로상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안우준 기록위원과 고(故) 최동원 선수 다큐멘터리 영화 ‘1984 최동원’을 연출한 조은성 감독의 공동수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내달 9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 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해 LPGA ‘상금 100만 달러’ 선수 15명

10년 전보다 7명 늘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 시즌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 이상 받는 선수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87.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5일 “10년 전인 2011년에는 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100만 달러 이상 선수가 8명이었는데 올해 15명으로 늘었다”고 투어의 성장세를 보도했다.

2011년 상금 1위 쟁야니(대만)가 292만1713달러를 벌였고, 상금 8위까지 8명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는 상금 1위 고진영(26)이 350만2161달러, 상금 100만 달러 이상은 15명이다.

골프채널은 LPGA 투어의 최근 성장세에 주목하며 “2022시즌에는 투어 상금 총액이 90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LPGA 투어 2022시즌 총상금은 8570만 달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종전에는 8000만 달러를 넘긴 적도 없다.

골프채널은 “총상금 200만 달러 이상 대회도 5년 전 15개에서 19개로 늘었다”며 “5대 메이저 대회 총상금 규모 역시 5년 전 1870만 달러에서 263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자 투어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격차는 여전히 크다.

PGA 투어는 2021-2022시즌 초반 9개 대회만 끝난 상황에서 이미 상금 100만 달러를 넘긴 선수가 16명이나 나왔다.

올해 LPGA 투어 커미셔너가 된 톨리 마쿠 서만은 “상금 순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선수들의 상금 규모와 PGA 투어와 격차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상위권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수입을 올리고, 남자 투어와 격차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